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(11월 2주차)

국가	주요 동향
<p>중 국</p> <p>바이어· 수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1.9(월) 텐진에서 해외유입과 무관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11.11(수) 현재까지 텐진에서는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, 모두 수입 냉동식품 유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⇒ 이로 인해, 텐진(천진) 해관 냉장·냉동 식품 수입업무 잠정 중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진해관(TSNSF)이 이메일로 국내 포도 수출물류업체에 "11.11(수)부터 천진해관은 신선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"는 내용을 통지함 ⇒ 당분간 한국 파프리카 수입 항구로 텐진 활용 불가 예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이어들은 텐진을 통한 한국 파프리카 수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, 금번 텐진 해관의 조치로 향후 텐진은 당분간 파프리카를 포함한 냉장·냉동 식품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* 올해 6월 베이징 신발지 도매시장에서 수입산 수산물(연어)을 판매하는 인원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어 지역 감염이 일부 발생한 이후 베이징은 현재까지 냉장 냉동 식품 수입업무를 중단하고 있으며, 텐진이 베이징 인근 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텐진(천진) 해관 냉장·냉동 식품 수입업무 잠정 중단이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있음
<p>미 국</p> <p>유통· 소비</p> <p>바이어· 수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 19 장기화로 통조림 고기, 수프, 파스타, 파스타 소스, 박스형 저녁식사, 반찬 및 땅콩 버터 등의 판매가 대폭 증가(SpartanNash 머천다이징 수석 부사장) ○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 한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들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하는 등 고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(뉴욕한국일보) ○ (J사) 김치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동부지역 한국산 김치류 판매를 위한 수입 협상 중 ○ (S사)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밀로 만든 건강 라면을 수입 판매 중.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라면류는 간식에서 한끼 식사 대용으로 인식이 바뀌며 판매가 대폭 증가했음 ○ (J사) 수산물은 식자재용의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지만 크지는 않으며, 마트에서 재택 소비 품목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짐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M사) 코로나 19로 면역력이 증시되며 자사의 아마존 온라인 인삼류 판매가 대폭 증가함. 현지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인삼류 제품 개발 중임 ○ (H사) 깐마늘은 4각 용기 포장의 5파운드 제품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규격임. 한국산 깐마늘 가격이 거의 2배(현재 소비자 가격 7천원/kg) 올랐으나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연휴 현지 소비자들에게 판매 가능하도록 한국산 마늘 수입 노력중임 ○ (C사) 자체 온라인몰 운영 수입바이어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30% 이상 성장 예상 ○ (H사/W사/O사) 코로나19 이후 홈쿡 열풍에 힘입어 HMR, 스낵류 등 수입 확대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 추진 중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 농무부(USDA) 산하, 식품안전검사국(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: FSIS)에서 라벨링 사전 승인 시스템 규정에 대한 개정안 제안서를 2020년 9월 14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음. 동 개정안 제안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중 <p>* 출처 : 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</p>